

# “오늘부터 횡단보도 앞에서 꼭 멈추세요”

### 차량 일시정지 보행자 보호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 3년간 도내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84명 전체의 45%

오늘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홍보와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오는 9월 신학기 에 맞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했다. 따라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

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를 먼저 살핀 뒤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고,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주행할 수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86명이며 이중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84명으로 전체의 45.2%로 나타났다.

또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19

%로 보행 사망자 5.3명 중 1명 꼴로 횡단보도에서 목숨을 잃었다.

제주경찰은 12일부터 자치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내 주요 교차로 등에서 캠페인 홍보와 계도 위주의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오는 9월 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차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각별히 안전운전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꽃망울 터뜨린 연꽃. 오랜만에 장맛비가 내린 11일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돌계기못에 연꽃이 활짝 피어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강희만기자

### 한림항 화재 사고 선박 3척 중 1척 인양 완료

#### 오늘 불 시작된 A호 인양

제주시 한림항 어선 화재 사고에 대한 선박 인양 작업이 실시돼 1척이 육상으로 인양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오후 3시 쯤 불이 시작된 어선 A호(29t) 옆에 있던 근해채낚기 어선 B호(49t)를 인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양 작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작돼 오전 9시15분쯤 수면 2m까지 끌어올린 B호에 대한 배수 작업을 실시, 오전 11시5분쯤 완료했으며 사고 현장 옆 물양장으로 옮겨 고정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사고 현장에 크레인 2대를 설치하고 사고 선박에 와이어를 설치하는 등 인양 준비작업을 실시했다. 해경은 오후 5시 현재 A호 인양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12일 오전 A호를 인양하고 13일 또 다른 선박인 근해자망 어선 C호(20t)도 인양할 계획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정확한 감식 일정과 방법은 인양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인양이 종료되는 대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감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 핵심공약 ‘학력 향상’ 추진 방향에 반발

### 인수위 “초 4-6 기말고사 등” 전교조 “일제고사 부활 전조” 교육청 “숙의 과정 거치겠다”

신임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력 신장’과 ‘학력 격차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추진 방향을 놓고 교원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일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활동 종료 기자 간담회에서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 내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단계별 추진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제주지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미 3월에 학교별로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평가를 하는 상황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

겠다는 것은 결국 시험 경쟁으로 학력을 높이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사실상 초등 일제고사 부활의 전조”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기말고사 등이 부활할 경우 지난 몇 년간 시행해온 과정중심평가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들은 “현재 제주 초등학교는 교사·학교의 자체도구 활용, 정성적 평가를 통한 진단의 다양화를 강조해왔고 실제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오고 있다”며 “교육감이 바뀌자마자 또다시 과거의 일제고사식 평가를 들고나온 점에서 과연 교육적 가치를 고민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공약에 따라 진단평가를 확대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중간·기말고사 등에 대한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2019년 이후 도교육청 차원의 평가가 없었던 만큼 앞으로 학교 측, 교직 단체, 학교 관련 구성원들과 토론·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0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대응 전략’ 발표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전환 계획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표집 방식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외에 초등학교 6학년을 포함 올해 9월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도입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 대상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서귀포경찰, 무면허 뺑소니 70대 남성 구속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무면허 7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중 신호 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서홍동 소재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해당 사건 재판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해 지명수배를 받던 상태였다. 백금탁기자

### 내달 5~6일 3년 만에 ‘대입정보박람회’

#### 62개대 입학사정관 등 참여 사전 신청자 수시 진학상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대입정보박람회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다. 도교육청은 8월 5~6일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2023학년도 대입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대입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학 입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박람회가 열리지 않았다.

올해는 전국 총 62개 대학의 입학사정관과 입학처 관계자가 자리하는 대학별 상담 부스가 운영된다. 대학입학정보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해 대학별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첫날 오후 1~5시, 둘째 날 오전 10~오후 5시다.

이와 함께 고3 학생·학부모 등 사전 신청자 110명(선착순)을 대상으로 도교육청 대학진학지원단 대입상담교사들이 수시 진학상담도 이뤄진다. 해당 진학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이달 14일 오후 5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로 신청한 뒤 안내된 내용에 따라 상담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한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11월 17일 시행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로 치러진다. 전선희기자

# 취 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 경 학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사단법인 제주양배추연합회 회장 김학중 외 회원 일동

부회장 박승준(한림) 이 사 양영수(한림) 이 사 김병진(애월)

부회장 이병찬(고산) 이 사 정영중(한림) 이 사 김영창(애월)

부회장 이정현(대정) 이 사 김용택(한경) 이 사 김희봉(애월)

이 사 강동주(한림) 이 사 허일생(한경) 이 사 고영하(하귀)

이 사 강명숙(한림) 이 사 홍방부(한경) 이 사 문형원(대정)

이 사 김용천(한림) 이 사 고동일(고산) 감 사 양희찬(한림)

이 사 양재식(한림) 이 사 고성관(애월) 감 사 고석빈(애월)